

큰 뜻 잇도록 공동 자택 사적지 지정 보존을



義人 홍남순
타계 10주기 되살아나는 광주정신

☞ 정신계승 토대 만들자

폐가 방지에 각계 통렬한 반성
“의로운 정신 후대에 물려주자”
이홍길 교수·홍성우 변호사 등
기념사업회 창립 준비 분주

세인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간 홍남순 변호사의 의로운 삶을 기억하고 그가 일생을 통해 보여줬던 민주인권 옹호와 저항 정신을 계승하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후손들이 빛을 이기지 못하면서 소유권이 넘어가고 폐가로 방치된 홍남순 자택(광주일보 11일자 1면) 보도 이후 지역 민주인사들을 비롯한 각계에서 통렬한 자기 반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홍 변호사의 업적과 그의 자택이 갖는 상징성을 알면서도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부끄러움이다.

임혹했던 군부 독재시절과 5·18 당시 민주주의의 산실이자 민주인사들의 사랑방으로 쓰였던 그의 공동 15번지 자택을 사적지로 지정, 보존하지 않고서는 홍남순 정신 계승 또한 헛구호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홍 변호사를 기리는 각계 인사들이 모여 ‘홍남순 선생 기념사업회 창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추진위)’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홍길 전남대 명예교수, 홍성우 변호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이부영 전 국회의원, 김정남 전 김영삼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사회수석비서관, 이강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여했다. 홍 변호사 유족들도 뜻을 함께하고 있다.

추진위는 서울과 광주전남지역 민주인사들을 회원으로 한 기념사업회를 올 연말까지 창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홍 변호사 자택을 5·18 사적지로 지정해 보존하는 일에도 역량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추진위는 올해 3월 수립된 광주시 5·18



광주시 동구 공동 15번지 홍남순 자택(점선 안)은 5·18 당시 광주시민들에게 ‘공동 은행나무집’으로 불리며 피신처이자 구속자 석방 운동 대책회의의 장소로 쓰였다. 후손들이 빛을 이기지 못하면서 지금은 소유권이 3자에게 넘어갔고 사실상 폐가로 방치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기념사업 마스터플랜에 홍 변호사 자택이 5·18 사적지 추가 지정 대상으로 오른데다, 그의 자택이 민주주의의 산실이자 민주인사들의 사랑방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고 있다.

안성례 전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서울 파란 전두환 정권 시대에도 공동 홍남순 변호사님 자택은 성지와도 같았다. 박정희 독재시절부터 워낙 왕성하게 투쟁을 해온 분이어서 지역민은 물론 경찰도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면서 “남편(고 명노근 전남대 교수) 등 5·18 구속자 석방 운동을 위한 대책회의도 공동 자택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석무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홍남순 변호사 자택은 그냥 홍남순이라는 한 인물의 공간을 넘어 민주주의의 산실과도 같은 상징적인 공간이다. 이력을 보면 그가 이 땅의 민주화 역사가라고 해도 과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홍 변호사는 그러나 인생 황혼기에 일정 부분 비판을 받기도 했다.

5·18 이후 들불처럼 번진 반미운동에 대해 ‘미군 철수 이후의 한반도에 대해서 고민해보았느냐’며 비판하고,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의 연대에 대해서도 ‘순수성을 유지하려면 스스로 가야한다’며 반대했다.

대중의 시선이나 인기는 의식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노년의 홍 변호사에 대해서는 재야 인사로서 의견을 존중한다는 평가와 유교에 바탕을 둔 보수주의자라는 비판이 공존했다.

송선대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1912년 태어나 판사, 변호사를 지내면서 얼마든지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었겠지만 단 한 번도 한 번 팔지 않고 민주주의 회복, 반독재 투쟁에 헌신하신 분”이라며 “많이 늦었지만 홍 변호사 타계 10주기를 맞아 그의 삶을 기리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돼 기쁘고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 10주기 추모식

홍남순 변호사 제 10주기 추모식이 15일 오전 11시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다.

‘대인 홍남순 변호사 추모모임(대표 홍성우·이홍길·박석무)’이 주최한 추모식은 홍 변호사의 유족과 민주인사,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낙연 전남지사, 정대철 전 국회의원, 이부영 전 국회의원, 박석무 전 국회의원(전 5·18기념재단 이사장)이 추모사를 낭독한다.

추모모임 관계자는 “엄혹한 세월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선도해 오셨던 홍 변호사님의 추모식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고인의 업적을 함께 기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062-675-3555)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김용구 파문’ 광주시 전 비서관 계좌 추적…가담 여부 조사

김용구(63) 전 광주시 정책자문관의 비리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씨의 친동생인 김모 전 광주시 비서관의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김씨와 연계된 업체들의 계좌를 면밀히 추적 중이다.

13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 비리 수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건설사 등 10개 업체와 동생인

김 전 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광주시청 7개 실국을 비롯해 4개 업체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추가로 지난 5월 6개 업체와 김씨의 동생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특히 추가 압수수색한 한 업체에서는 컴퓨터 등 김씨의 물품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와 이 업체가 긴밀한 관계임을 증거하는 것으로 읽혀진

다고 설명했다. ‘소록도 살인’ 60대 무기징역

검찰은 또 김씨가 광주시 발주 사업에 부당하게 관여하는데 동생인 김 전 비서관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업체간 오간 돈의 흐름을 밝히기 위해 계좌추적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계좌에서는 김씨의 또 다른 알선수재를 밝힐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혐의가 추가로 확인되면 1~2주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소록도 살인’ 60대 무기징역

고흥 소록도에 거주하는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오모씨(68)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3일 오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 8월 8일 밤 소록도에서 아무런 관계도 아닌 최모(여·60)씨와 전모(64)씨가 몰래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혐의로 기소됐다. /순천=김은종기자 ekim@kwangju.co.kr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12~18년형 선고

휴대폰 영상 복원 등으로 3명 공모 인정

신안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 모 등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엄상섭)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간강 등 치상)로 구속 기소된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교육 이수 40시간도 각각 병행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됐던 피고인들의 공모를 인정했다. 특히 피고인 이씨가 당시 범행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이 새로 드러남에 따라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최고형인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김씨에게는 지난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형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모두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임에도 공동해 학교 교사인 피해자의 주거시설에 침입,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극히 불

량한데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이 됐던 범행 공모 부분에서 피고인들의 공모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CC-TV로 확인된 피고인들의 이동 상황, 피고인들의 통화 내역, 피고인 이모씨의 휴대전화 검색 및 재생 내역,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해 볼때 공모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새로 드러난 휴대전화 영상은 검찰이 첨단 디지털 복원기술을 이용해 이씨가 삭제한 영상을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피고인은 지난 5월21일 오후 11시10분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 신안 섬마을의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한 혐의로 6월29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25년, 이씨 22년, 박씨 17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목포=김병민기자 dss6116@kwangju.co.kr

박철환 해남군수 1년6개월 선고...직위 상실형

근무성적평정 조작 혐의

공무원 인사 근거가 되는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환(57) 해남군수에 대해 1심 법원이 직위상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군수의 보석 청구 또한 기각했다.

앞선 뇌물수수 혐의로 박 군수와 함께 기소된 비서관 장모(52)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공무원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해 임용권자와 평정자·확인자를 본

리해 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도록 한 임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정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 판사는 “박 군수는 인사실무 담당 직원과 공모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미리 확정해 평정을 작성하게 하고, 일부는 서열 명부를 제작성하게 하는 등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사·의결결함을 철저히 무력화시켰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박 군수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 실·과장과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자신이 정한 순위와 맞춰 공평(근무성적평정)하도록 하는가 하면 이에 따른 허위의 회의를 작성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주부·은행원·경찰 합동작전...보이스피싱 전담책 검거



○~60대 주부와 은행원, 경찰이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한 합동작전을 벌여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선족 현금 전달책을 검거.

○~13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받은 백모(여·64)씨는 북광주농협 연제점 직원과 함께 지난 12일 광주시 북구 양산동에서 1시간40분 동안 합동작전을 펼친 끝에 보

이스피싱 조직원 김모(29)씨를 붙잡았다.

○백씨는 ‘아들이 납치됐다’라는 전화를 받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던 중 농협 직원의 설명을 듣고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경찰은 “백씨가 아들이 납치된 것처럼 침착하게 명품 연기를 펼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붙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역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LPG중전소] 화순읍 대리 대로변 터널식세차사실 사무실포함 토지 3,228㎡ 건물 355㎡ 감평가 12억7천4백 ▶ 최저가 8억9천3백
- ★ [공장] 광산구 오선동 진곡산단내 5개동공장 6차선도로점 토지 8,289㎡ 건물 4,589㎡ 감평가 44억5천1백 ▶ 최저가 31억1천6백
- ★ [공장] 담양읍 삼만리 토지 9,902㎡ 건물 2,921㎡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육가공공장 감평가 44억5천1백 ▶ 최저가 31억1천6백
-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토지 9,178㎡ 건물 5,842㎡ 장성백이사거리 인근 공장지대 감평가 36억5천5백 ▶ 최저가 25억5천9백
-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토지 5,977㎡ 건물 2,122㎡ 동화사거리 부근 공장지대 감평가 13억3천6백 ▶ 최저가 9억3천5백
- ★ [공장]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9,917㎡ 건물 3,989㎡ 대마일반산업단지내 감평가 35억2천7백 ▶ 최저가 24억6천9백
- ★ [공장]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3,305㎡ 건물 1,054㎡ 대마일반산업단지내 감평가 11억3천2백 ▶ 최저가 7억9천2백

투자 추천 물건

- ★ [공장, 중전소] 광양시 진월면 진월C인근 4차선대로변 토지 12,914㎡ 공장 1,922㎡ LPG중전소 352㎡ 매매 37억5천
- ★ [공장] 전북 익산시 팔봉동 익산제2산업단지내 토지 6,627㎡ 건물 4,226㎡ 매매 19억
- ★ [토지] 북구 삼각동 31사정문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성업중 투자적합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 한라산조망 펜션, 빌라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가능 상가 28억선 교환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당후 결정
- ★ [무인텔] 광산구 쌍암동 메가박스부근 무인텔 대지 5,564㎡ 건물 6,134㎡ 객실67개 투자적합 매매 115억

수익형 추천

- ★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 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5천 월2천8백만원 임대 50억 (요양병원 허가 취득)
- ★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터리빌부근 코너 대지 298.9㎡ 건물 175.9㎡ 4층건물(용 6억포함), 보증금 7천 월 4백6십 매매 13억5천
- ★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대단지 토지 5,359㎡ 건물 595.4㎡ 2층공장 매매
- ★ 광주 북구 풍향동 6층건물 1층 마트 2~3층 목욕탕 4~6층 원룸 26개, 목욕탕 직영중 보증금 1억1천5백 월 9백7십 매매 18억
- ★ 광주 남구 백운동 왕복5차선도로 버스승강장부근 5층건물 대지 527㎡ 건물 1,221㎡ 보증금 2억 월 1천만 매매 18억
- ★ 광주 수완동 경찰지구대 인근 아파트상권 4층상가 준주거지역 대지 475㎡ 건물 999㎡ 월 8백만 매매 17억

병원, 공장 매매 및 임대 구함 / 광주 근교 토지 급 구함 / 공인중개사 강천구 062-714-2251